

‘약육강식’ 생명의 질서 이제는 바꾸자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박종무 지음



지난 2010년 겨울 구제역이 발생했다.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익숙한 장면들이 펼쳐졌다. 도로 곳곳에 차단막이 설치되고 오가는 차량마다 소독약이 살포됐다. 도로에 뿌려진 소독약으로 도로는 빙판이 얼었다. 사람들의 통행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무려 3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매장되어야 했다. 그것도 산 채로.

“포크레인에 의해 구덩이에 떠밀린 돼지들은 다른 돼지를 밟고 구덩이를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썼지만 산 채로 흡수에 파묻혔다. 놀란 새끼 송아지는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을 흘리며 어미소에 매달려 울부짖었고, 어미소는 송아지를 보호하려고 애썼어. 하지만 결국 어미소와 송아지는 같이 땅속에 묻혔어”

산 생명이 매장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악몽에 다름 아니다. 그 일을 담당했던 인부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인간은 전염병이 걸리면 어떻게든 고치려 하면서도 왜 가축은 인간의 건강한 생명까지도 살쳐분 할까?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도덕적 딜레마를 느끼지 못한다. 가축 살처분의 문제점을 비롯해 양육강식의 생명관에 경종을 울리는 책이 발견됐다. 수의사이며 생명윤리학 박사인 박종무의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는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전환을 촉구한다.

저자는 인간 중심주의는 생태계 파괴와 동물에 대한 폭력에 도덕적 딜레마를 느끼지 못했다고 단언한다. 그



1895년 영국이 호주를 점령할 당시 들어온 토끼는 급격히 증식해 생태계를 훼손시켰다. 사진은 사냥된 토끼들.

러면서 유기동물, 공장식 축산, 예방적 살처분 정책, 실험 동물, 동물원 동물 등 반생명적으로 다루지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다.

책의 구성이나 내용은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다. 수의사인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순한 가축의 살처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기후 위기를 비롯해 환경문제까지 관심의 영역을 확장한다.

저자는 공장식 축산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다. 대량 생산으로 육류 가격은 낮아져 식탁이 풍성해진 것은 일말의 장점이다. 그러나 공장식 축산은 가축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배설물에는 사료에 첨가한 항생제가 잔류해 토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언급한 대로 이러한 문제는 기후 위기를 가속화한다.

연구 결과 축산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51%를 차지하는데 이 같은 수치는 수송 수단의 연료 사용으로 인한 폐해보다 높다. 사료용 곡물 재배는 다시 산림 파괴와 같은 악순환을 낳는다.

저자는 곡물 사료를 먹은 가축은 장내 발효로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탄과 이산화질소를 배출한다고 부연한다. 그 양은 인간이 배출하는 메탄의 37%, 이산화질소의 65%에 이른다는 것이다. 모두 인간중심주의에 근거한 일방적 우월성이 빚은 결과다.

이제는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동물을 대하는 문제를 넘어 인류 생존과 직결된다. “생물은 양육강식,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생명 공동체인 공생명(共生生命)이 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리수·1만59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에펠탑·콜로세움·크렘린...전쟁의 참상을 증언하는 건축물

건축은 어떻게 전쟁을 기억하는가

이상미 지음



독일 베를린 한복판을 걷다보면 만나는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는 하늘로 치솟은 첨탑 등이 인상적인 여느 교회와는 다르다. 대신 검게 그을린 첨탑과 윗부분이 날아가 버린 종탑이 눈길을 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공습으로 파괴돼버린 모습 그대로 남겨진 교회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됐다. 종전 후인 1956년, 교회를 다시 짓기 위한 공모를 통해 신축이 결정됐지만 전범국인 독일 국민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마음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파괴된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택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전시기획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미의 ‘건축은 어떻게 전쟁을 기억하는가-에펠탑에서 콜로세움까지’는 전쟁의 생존자이자, 증언자인 ‘건축’을 통해 세계사의 전환점이 된 전쟁의 역사를 살펴본 책이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저자는 로마시대부터 냉전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사를 아우르며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28개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대학도시 하이델베르크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는 산 위에 건립된 하이델베르크성이다. 붉은 빛깔의 웅장한 외관과 22만㎡가 들어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술통, ‘축배의 노래’가 흐르는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으로 유명한 지하감옥 등 볼거리가 많은 이 성은 술한 수난을 겪은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신교와 구교파의 갈등이 도화선이 된 30년 전쟁으로 성 안의 아름다운 정원은 대부분 파괴됐다. 1689년 루이 14세의 프랑스 군은 하이델베르크를 점령했지만 결국 전쟁은 실패로 끝났고, 대신 성을 떠나며 곳곳에 불을 지른다. 프랑스 문화 빅토르 위고는 훗날 “이 성은 유럽을 뒤흔든 모든 사건의 피

해자가 돼 왔으며 지금은 그 무게로 무너져 내렸다. 루이 14세가 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붉은 심장’으로 불리는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 역시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7세기 러시아 내전 당시 폴란드군의 침공을 받았고,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온 나폴레옹의 침공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다. 또 세계사의 격랑 속에서 5번 파괴되고, 5번 재건된 역사를 간직한 이탈리아의 유서깊은 몬테카시수도원은 탄흔과 그을린 흔적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밖에 책에서는 나폴레옹의 치욕과 드골의 영광이 공존하는 랑부레성, 로마제국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격받은 요새인 영국의 에든버러성, 로마인에게 기쁨이지만 유대인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티투스 개선문, 프랑스의 에펠탑과 마지노선, 이탈리아의 산마르코성당 등 다양한 건축물을 만날 수 있다. <인물과 사상사·1만7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또 하나의 조선=신분상으로는 말바닥 여중에서 왕비까지, 지역으로는 남백 산골 촌부에서 한양 마님까지, 나이로는 10대 소녀에서 여든 할머니까지, 조선 ‘너머’의 조선을 담았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저자 이숙인은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여자들의 것 말고는 공통점 없는 이들을 통해 ‘조선 여성들의 일반적인 삶’이란 착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겨레출판사·1만8000원>



▲무례한 상속=‘시간을 파는 상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이야기했던 김선영 작가의 신작이다. 저자는 어느 날 할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후 할머니가 남긴 엄청난 액수의 유산의 존재를 알게 된 주인공 연서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나다움의 중요성과 사랑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림·1만1000원>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공정성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공정성의 본질적 의미를 파고든다. 책을 쓴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국가 단위를 비롯해 교육, 성별, 계층, 의료, 이주민, 노동, 행복 추구 등의 측면에서 불공정성 문제를 파악

하고, 공정성을 실현할 유기적 방안을 찾는다. <시공사·1만9000원>

▲음식에 그런 정답은 없다=정재훈 작사가 ‘오늘의 식탁’을 둘러싼 음식 문화에 질문을 던지고, 음식과 관련해 착각에 가려졌던 다양한 스토리를 발견해 들려준다. 저자는 각종 유행 다이어트, 먹방, 혼밥, 채식, 반려동물의 음식, 대체육 등 음식과 식문화 41가지를 탐구하며, 개성과 성별, 계층, 의료, 이주민, 노동, 행복 추구 등의 측면에서 불공정성 문제를 파악

어린이·청소년 책



▲마지막섬=미국일러스트레이터협회 선정 ‘최고의 그림책 상’, 포트투갈 아마도라 국제 만화 축제 최우수 일러스트레이터 상을 받고 뉴욕타임스 등에서 주목 받은 이지현의 네 번째 창작 그림책이다.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하던 노인의 터전이 대기 오염과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모습을 그렸다. 따뜻한 느낌의 색연필 화로 아름다운 자연과 야생을 표현했다. <창비·1만3000원>

이 가진 비밀을 들려주기 시작한다. 그리고 알리시아의 인생은 놀라우리만치 새로워지는데... 과연 ‘아무것도 없는 책’의 비밀은 무엇일까? <주니더RHK·1만4000원>

▲비아, 그만=꽃누르미 작가 이지현의 동화다. 비가 그치고 해님이 오길 꿈꾸는 재욱이의 일기. 며칠째 내리는 비, 그림 그리기도 재미있지만 재욱이는 이제 그만 밖에 나가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며 놀고 싶다. 해님을 기다리며 정밖을 내다보지만 보이는 건 주룩주룩 내리는 빗줄기 뿐이다. 재욱이와 친구들은 다 함께 외친다. “비아, 그만!” 과연 재욱이와 친구들이 바라는 대로 비는 그칠까? <소동·1만3800원>

▲아무것도 없는 책=말수가 적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손녀 알리시아에게 책 한 권을 물려준다. 책을 펼쳐 본 알리시아는 어리둥절하다. 흰 종이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알리시아에게 이 책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